

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02.37	↑ 코스닥	839.45
	(+134.03)		(+57.40)
↓ 금리 (연)	3.877	↓ 환율 (원/달러)	1297.30
	(-0.072)		(-25.10)

메모리 반도체 업계  
챗GPT 돌풍에  
HBM 경쟁 본격화  
04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 韓, 가계빚 선도국?... 부채 비율·증가속도 '독보적'

OECD 16개국 2022년도 가계부채 포르투갈·영국 등 7개국 비율 감소 한국만 유일하게 30%p 넘게 상승 10년 동안 가파르게 올라 203.7% 2021년 기준 美·日은 적정선 유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부문에서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여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불어나는 속도가 독보적으로 두드러졌다.

6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2년에 153.9%로 포르투갈(155.2%)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이후 10년 동안 무려 49.8%포인트(p) 급등해 2022년 기준 203.7%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포르투갈은 120.6%(-34.6%p)까지 줄었다. 한국보다 수치가 높았던 영국 또한 159.7%에서 146.2%로 13.5%p 내려갔다.

이날 기준 16개 회원국의 2022년도분 가계부채/순가처분소득이 공개됐는데 포르투갈·영국 등 7개국은 이 비율이 도리어 축소됐다. 수치가 늘어난 국가 중에서도 한국만 유일하게 30%p 넘는 오름폭을 기록했다.

스웨덴의 경우 2012년에 165.9%로 가구빚 수준에서 한국을 앞지른 바 있

다. 스웨덴 역시 10년간 상승폭이 28.9%p(16개국 중 2위)로 꽤 컸으나 지난해 기준 194.8%로 우리보다 8.9%p 낮았다.

덴마크(314.2%→207.4%)와 네덜란드(272.7%→210.8%)는 각각 -106.8%p, -61.9%p의 엄청난 내림세를 나타냈다. 그리스도 작년에 81.8%로, 2012년(126.4%)에 비해 44.6%p 줄었다.

또 이탈리아(91.1%→87.6%)가 -3.5%p, 오스트리아(91.0%→88.8%)가 -2.2%p의 하락폭을 보였다. 이 밖에 독일과 체코는 10%p 이내의 상승폭, 캐나다와 벨기에, 프랑스는 20%p 이내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은 16개국 가운데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구빚 비율이 3번째로 높았다. 이제 네덜란드·덴마크마저 추월할 기세다.

우리나라의 이 수치는 2014년 158.0%로 소폭 오른 이후 2016년(174.5%)과 2018년(185.0%), 2020년(197.8%)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으로 200% 선을 넘어섰다. 다만 2021년(209.8%)에 비해서는 작년에 소폭 내렸다. OECD가 한국 관련 해당 수치를 취합하기 시작한 2008년에는 138.5%에 그친 바 있다.

2021년도분까지만 공개된 미국과 일본은 가계부채가 적정선에서 꾸준히 관리되는 모습이다. 미국은 2012년



尹 대통령, GTX 열차서 국민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경기 화성 동탄역 GTX-A 노선 열차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뉴시스

114.7%에서 2021년 101.8%로 12%p 이상 내렸고, 일본은 상승(108.3%→122.1%)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일본은 지난 1995년 이래 대체로 100~110% 선을 유지해 왔다.

멕시코는 이 비율이 25.6%(2021년)로 비교 대상 34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또 독일(99.5%·2022년)과 스페인(101.5%·2021년), 아일랜드(112.8%·2021년) 등이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저작권·정보유출 등 경각심 커져 데이터 무단 학습에 대중 비난도

### AI의 은밀한 비밀

#### <下> 한국은 지금

신문협회, 네이버와 저작권 갈등 지니뮤직, 음악저작권협회 논쟁 이루다, 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

미국 내 굴지의 인공지능(AI) 기업들에 저작권 침해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또한 AI 산업의 저작권을 둘러싼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챗GPT(chatGPT)가 이목을 끌기 전 2020년 AI 저작권과 관련해 흥역을 치른 바 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물 소비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며 기업 또한 대처를 시작했다.

한국신문협회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시대 뉴스 저작권 보호 방안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뉴스 저작권 보호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신문협회의 움직임은 네이버의 LLM(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X가 50년 분량의 뉴스와 9년치의 블로그 콘텐츠를 학습했다 밝힌 데서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7월에도 지니뮤직이 AI 편·작곡서비스 '지니리라'를 공개한 직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에 관한 갈등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나타난 단체와 AI 기업간 저작권 논쟁 전 이미 대중과 기

업의 AI 개발 문제로 흥역을 치른 바 있다. 바로 스캐터랩이 개발해 2020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한 대화형 AI '이루다'다. 이루다는 맥락을 가진 자연스러운 대화로 큰 호응을 받았으나 학습 데이터셋이 타 어플을 통해 수집된 100억 건의 채팅내역으로 밝혀지며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루다의 학습 데이터셋 사건은 정부가 스캐터랩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5550만원에 과태료 4780만원 총 1억 33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저작권과는 연관이 낮으나 이루다 사건은 AI 학습 데이터셋의 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에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

IT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이루다 사건 이후 AI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다양한 저작권, 정보유출 등에 대한 경각심이 자리 잡았고 문제제기도 활발해졌다"며 "특히 지난해 챗GPT에 앞서 공개된 이미지 생성 AI에 대한 논란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오픈AI가 챗GPT에 앞서 공개한 달리(DALL-E) 등 이미지 생성 AI들은 이용자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것과 동시에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작품을 무단 학습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겪은 당사자들을 지명할 수는 없으나 특정 작가를 떠오르게 하는 그림체와 스타일이 생성되면서 비윤리적이라는 주장이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 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피 단숨에 2500선

코스닥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 공매도 잔고 많은 2차전지株 급등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2500선을 회복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6% 급등한 2502.38에 거래를 마치고, 2020년 3월 25일(5.89%)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2500선을 넘긴 것은 지난 9월 22일 이후 45거래일 만이다. <관련기사 2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7039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기관도 2043억원 어치를 사들였다. 개인만 9169억원을 쏟아내며 4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다. 특히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전지 종목이 급등했다. LG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82.05)보다 57.40포인트(7.34%) 상승한 839.45에 거래를 종료했다. /뉴시스

에너지솔루션은 전거래일보다 22.76% 오른 49만3500원을 기록했고, POSCO홀딩스도 19.18%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34만9500원까지 올랐다.

삼성전자(1.87%), SK하이닉스(5.72%), 삼성바이오로직스(3.83%), 포스코홀딩스(19.18%), 현대차(2.60%), LG화학(10.62%), 삼성SD

I(11.45%) 등 모든 시총상위 종목이 상승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782.05)보다 57.40포인트(7.34%) 상승한 839.4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 역시 상위 종목이 일제히 급등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57분 코스닥 시장에 사이드카를 5분간 발동했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그 이후로 5분간 모든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호가 효력이 정지된다.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718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4876억원을 팔아치웠다.

2차전지대주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며 29만9000원, 82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뉴스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 완료... 8일 국회에서 위촉식  
▲ 조국, 총선 출마 질문에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도 생각 중" /사진 뉴시스

▲ 합참차장에 황유성 중장... 군, 하반기 장군 인사 단행  
▲ 대통령실 이달 하순 개편... 홍보 이도운 유력·정무 한오섭 거론



▲ 태영호, 뉴욕·워싱턴서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 캠페인 /사진 뉴시스  
▲ 합참 "북한, 18일 미사일공업절 계기 정찰위성 3차 발사 가능성"